

〈기조강연〉

정보사회와 종교교육

송 병 순

(영남대학교)

〈요 약〉

정보사회의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교육은 정보사회의 사회변동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사회의 세가지 역기능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이행기에서 현대인은 과학기술문명에 따른 인간성 상실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비관적인 우려와 불안 속에서 위기와 긴장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사회 윤리의 부재와 가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종교 교육적 접근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삶의 좌표와 사회 윤리 회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정보사회의 다매체는 '비디오쿠스'라 불리는 파편화된 대인관계 기피자와 쾌락지향적인 무력한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공동체의식을 본질로 하는 종교를 통하여 고립과 무기력한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지구적 환경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지구수탈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명존중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즉 종교의 영적 윤리 패러다임 또는 녹색윤리 패러다임이 표방하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윤리적 공동체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다종교적 현실 속에서 모든 종교인의 반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종교적 차원'의 종교교육의 과제와 시사점을 통하여 제기하고 있다.

I. 서 론

정보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중적이다. 한편에서는 장미빛 정보사회론으로 낙관적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부

정적, 비판적 견해들이 제시 하고있다. 전자는 정보사회의 이미지로 더 나은 자본주의와 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반면에, 후자는 더욱 촘촘해진 감시와 통제의 망으로 기존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새로운 지배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저런 주장이 난무하는, 낙관적 기대와 비관적 우려 속에서 정보사회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무릇 교육은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정보사회의 사회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 산업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위기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정보사회로의 사회변동이 수반하는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셋째 정보의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의 선택, 처리능력을 길러 줄 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의 궁극적 관심, 종교적 삶의 자세, 우주·자연관에 비추어 정보사회의 세가지 역기능적 위기, 즉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물질문화에 대한 맹목적 집착에 기인하는 인간성 상실, 둘째 정보사회의 각종 미디어와의 접촉에 기인하는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인 개인의 파편화, 셋째 산업혁명 이후에서부터 정보화사회라 지칭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인간중심의 자연정복이 야기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다종교적 현실이 요구하는 종교교육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정보사회와 삶의 좌표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 옛날 제왕이나 귀족들조차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의 편리한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간은 예상을 뛰어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보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

져 가고 있다. 다음은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한 정보화 사회의 특이한 모습이다

1. 사회적 측면의 정의

- 정보가 핵심적인 사회, 문화, 경제적 자원으로 생산, 소비, 유통되는 사회
- 정보와 관련된 기술과 기계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화(경제, 정치, 정보 민주화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회

2. 사회 관계론적 측면의 정의

-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시공간적 제약이 약해지는 사회
- 정보 매체를 장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격이 확대되는 사회
- 정부나 기업의 정보 독점과 통제가 약화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소유가 계층적, 지리적으로 평준화되는 사회

3. 사회 기술적 측면의 정의

-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가능해지는 사회
- 다양한 정보들의 생산과 전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적 창조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 정보산업이 주가 되는 사회(포럼 21, 1996: 47-61; 한준상, 1997: 150)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되는 집단에서 창조되고 선전된다. 주로 광고매체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나 상품 홍보에서는 정보사회가 편리하고 재미있으며 환상적인 세계로 그려진다. Toffler는 정보화사회가 새롭고 이상적인 문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더욱 공공해 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정보사회가 지배세력의 의도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쌍방향성이나 전자네트워킹이 민주화에 기여하기 보다 통제
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은 가상공간을 확
대하여 가상공간으로 인간을 내몰아 개인을 파편화 함으로써 산업사회와는 또다른
인간소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으로 미디어 매니
아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 문명사회로 일컬어지는 정보사
회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물질지상주의와 쾌락주의 문화와 관련하여 인간성 상실의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문명과 인간성 상실

정보사회로 사회 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에서 현대인은 생존 그 자체가 비
관적일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정신적 자유와 행복
을 포기하면서 까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물질적 번영에 몰두해왔다. 그 과정에
서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과 이에 바탕을 둔 물질 지상주의가 오늘의 가치위기와
사회윤리의 부재를 초래했다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인류는 20세기 전반까지 소중하게 지켜 왔던 전통적 제
반 가치를 얼마나 지켜 나가고 있으며 유지하고 있는가 반문하여 볼 때, 인간관으
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관·사회관·국가관·세계관·소유관·행복관·명예관·윤리
관·종교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없다(윤세원,
1987).

Drucker가 지적한 대로 오늘의 사회는 분명히 단절의 시대이다. 이와같은 전통
과의 단절은 전통적 가치에 의한 사회통제의 약화를 가져와 현대인들을 심각한 가
치갈등에 빠트리고 있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규
범·무의식·무감각·무절제·무질서와 같은 부정적인 삶의 존재방식을 취하게 함
으로써, 우리가 사는 오늘이 첨단 정보사회라고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
려를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 문화에 마비된 사회윤리의 부재 현상, 생존자체를 위협하
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간을 기계의 한 부품으로 전락시킬지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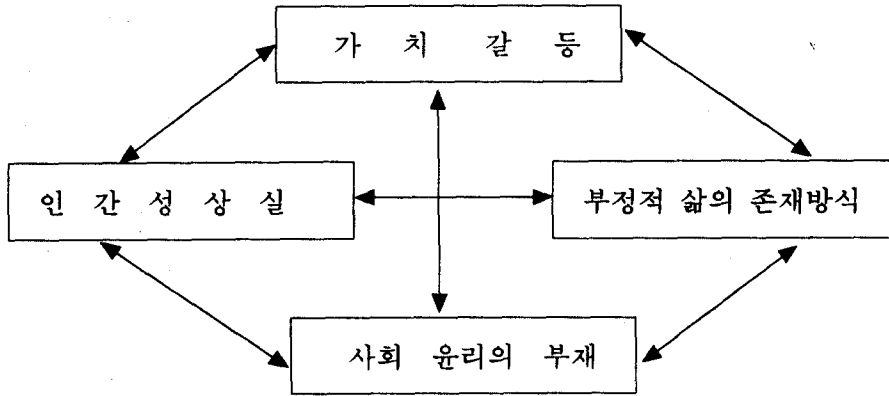
르는 시스템 사회와 사고처리능력을 갖춘 제5세대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정보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생존조차도 비판하는 미래학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어느 곳에서 촉발될지 알 수 없는 긴장과 위기 속에서 현대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된 과학기술은 인류의 물질 생활을 놀랍게 향상시켰지만, 인간을 기계의 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인간을 비인격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이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조작하는 세상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니 피고용된 인간은 이제 고도로 정밀화된 자동화 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되고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고도의 정보를 간직하고 자기증식하는 사이버네이션(cybernation)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면 사회는 인간의 이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세계를 개척해 나아갈지도 모른다. 그때의 사회는 인류사회가 아닌 기계의 사회요, 로봇의 사회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자기증식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에서 인간들이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심지어 숭배함으로써 인간상실은 더욱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간성상실은 가치갈등과 사회윤리의 파괴를 증폭시켜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을 계속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인간성상실, 가치갈등, 사회윤리의 부재와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은 (그림1)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여러분야에 걸쳐 사회적 가치위기가 더욱 증폭되었으며 개인에게는 삶의 방향 상실을 안겨주고 있다.

(그림1)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위기 확대재생산의 주요 요인간 상호작용의 실제



현대 정보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가치 위기에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 과학·기술문명이 자기증식과정에서 야기된 기계와 인간의 주객전도, 전통과의 단절에 따른 문화적 통제의 약화로 빚어지는 정신적 고뇌와 불안, 인간 중심의 자연정복과 개발에 따른 생태계파괴와 생존위협, 소비중심의 황금만능시대의 인명경시의 풍조, 향락문화에 바탕을 둔 성의 상품화와 성적타락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위기와 개인의 삶에 대한 방향상실과 관련이 있는 비행·일탈·범죄·부적응현상으로 부정부패, 무사안일주의, 무질서·무기력·인신매매·도덕불감증·성도덕의 문란·폭력·마약·과소비·낭비·사치·허영·한당주의·욕구좌절에 의한 패배주의·극도의 이기주의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정보화사회는 새로운 가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혼돈의 사회이다. 이 혼돈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켜 Heidegger는 마음의 둘 곳이 없는 집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2. 삶의 좌표에 대한 종교적 탐색

삶의 의미가 더 이상 단순히 사회경제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비해 부차적인 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적 행동, 희생, 사랑 등은 삶의 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듯 사회 윤리의 부재를 극복하고 가치 위기부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종교 교육적 접근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본질적으로 인간들에게 인간으로서 의무를 의식하게 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도록 명령하고 학습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종교는 그러한 윤리 의식의 개발이라는 교육적 사명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종교가 극도의 인간성상실로 자기 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좌표 설정과 사회윤리 회복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인의 삶의 방향설정에 주는 시사점이다. 삶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종교는 물질지상주의, 쾌락추구와 감각문화에 의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거울이 아닐 수 없다. 종교는 인간의 독립성과 우주의 정신적 세계와의 교통과 교제를 가르침으로써 물질생활의 일차원적 삶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권장한다. 종교는 인간의 자기 초월을 권함으로써 인간다운 삶, 이차원적 인생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물질세계를 '나의 살 집'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물질세계와 그 속의 일차원적 생활로부터 스스로 소외되는 길만이 현대인의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연과 물질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우주 전체의 정신과 교통하는데서만 현대인은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쨌든 종교의 역할은 원시인에게나 현대인 모두에게 자연과 물질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의 독자성을 찾아가는 인간정신의 근본문제와 씨름하는 것이라 하겠다(윤세원, 1987).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자연-사회-우주로 연결되는 인간 실존에 대한 종교적 자각은 오늘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의 좌표설정에 또다른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종교가 사회윤리회복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인간사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양심'과 '정의'의 비전(vision)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한다. 혹자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과 옳고 그른 것을 알아차리는 윤리적 인식의 능력을 보아 인간의 종교적 차원을 알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인간의 양심의 소리와 '진리의 음성'을 동일시한, 인간 양심의 개발은 바로 사회윤리 재건을 위한 도덕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교적인 인간은 단순히 행복된 삶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양심적인 삶, 정당하고 올바른 부끄럼 없

는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서광선, 1994: 43).

종교가 개인의 양심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만큼, 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그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고발하고 시정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한 사회가 저지르는 부조리와 불의는 개인의 불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사회의 부조리는 사회 체제와 구조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의 구조와 체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사회는 부도덕하며, 부도덕한 사회에서의 개인의 도덕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종교는 사회의 정의를 그 사회의 구조와 체제차원에서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개인의 문제와 함께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교는 사회의 복지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함께 논하며, 개인의 양심을 논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정의를 논한다. 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이다. 법이 도덕의 최소한 이라면 종교는 도덕의 최대한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종교적 차원의 윤리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다.

III. 다매체 시대의 쾌락주의와 무력감의 문화

오늘날은 가히 정보 홍수의 시대이다. 예컨대 미국에만 260,000개의 광고판, 17,000종의 신문, 12,000종의 정기간행물, 27,000개의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4억 대의 텔레비전 5억대의 라디오(카 스테레오는 빼고)가 있다. 매년 4만 권의 신간이 발행되며(전세계적으로 3십만 권), 4천1백만 장의 사진이 촬영되고 있으며 매년 6백억 개의 광고우편물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19세기의 전보와 사진으로부터 20세기의 실리콘 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보의 소음을 증폭시켜 왔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자 보통 사람들에게 정보는 더 이상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지게 되었다(Postman, 1997).

정보를 행동으로 이어주는 끈은 끊어지고 말았다. 이제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정보는 사고 팔 수 있고, 오락의 형태로 이용되며, 사람의 지위를 높이는

의상처럼 입혀지기도 한다. 전세계 수백만 장소로부터 광파(光波), 공중파, 전신 수신기, 컴퓨터 뱅크, 전화선, 텔레비전 케이블, 인공위성, 인쇄물 등 가능한 모든 채널과 매체를 통해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보라는 늪에 빠져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에 대해서나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된 개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곳으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로 이끌 일관된 틀이 없다. 우리는 무엇이 의미 있고 유용하며 관련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잃어버렸다. 정보 홍수에 대한 방어체계는 이미 무너졌으며, 우리의 정보 영역 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에 있다.

1. 쾌락과 무력감의 정치경제학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매체의 접근과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부를 창출하는 재화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Drucker, 199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처리 매체들은 개인에게 오히려 못하게 하는 사회적 마약의 거미집으로 그들의 신경세포를 움아 놓는다.

다매체, 혹은 다채널 매체의 등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매체들이 마치 마약과 같은 혹은 벌거벗은 성욕과 같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물기에 미치면, 그들을 자동차 매니아라고 하는 것처럼, 정보 매체들의 과다 노출은 미디어 중독, 미디어 매니아와 같다. 그런데 이것의 위험성이 마약이나 절제되지 않은 성욕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파 전달의 무선택권 때문에 더 그렇다.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누구에게나 전염시킨다. 아무때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개인이 원하면 전파들은 벌거벗은 누드의 모습으로 그들의 육체에, 혹은 정신 깊숙한 그곳으로 내달려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 즉, 어느 누구든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락으로 시작된 전파 접촉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 증상을 일으켜 개인의 성격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런 단순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회적인 중독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정보에 의한 설득이 차원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갖가지 정보

들이 끝내 정치적 폭력과 육체의 정치학적 오염 물질로 가동한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 연구팀이 연구조사한 “정보 고속도로의 포르노 장사”라고 연구 논문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에는 엄청난 양의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다고 한다. 즉 ① 유스넷의 뉴스 그룹 중에는 83.5%의 그룹이 음란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스미소니언 연구소 열람자가 1백90만 명을 기록하는 데 50일이 걸린 반면, 플레이보이는 불과 7일만에 4백90만명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② 사설 게시판 운영자들은 음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짝퉁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④ 소비자의 지역 분포는 범세계적이며, 소비자의 98.9%가 남성이다. ⑤ 사이버 포르노의 내용은 일반 포르노 잡지에서조차 볼 수 없는 변태 장면들을 복권 뽑기 식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준상, 1997: 150-156).

오늘날 이러한 음란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비디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며, 정보사회의 병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정보범죄 대책본부에 따르면 1995년 4월 10일 부터 1997년 6월 30일 까지 정보범죄 수사실적이 무려 126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음란물의 급증으로 컴퓨터와 가상공간이 포르노천국이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정서를 오염시키고 탈선을 부추기는 심각한 유해환경이되고 있다(조선일보, 1997. 8. 5; 중앙일보, 1997. 8. 27; 박혜원, 박금주, 1996: 이희수, 1997).

우리 나라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각 통신망에서 운영하는 불건전 정보센터에 1997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내용중, 대화방과 관련된 것이 전체 2,325건 중 1,197건으로 51.5%나 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PC통신 대화방의 불건전 정보유통 유형은 대부분 개인을 비방하는 욕설이나 아무 의미 없는 욕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음란 대화도 285건(11.1%)이나 되는 것으로 1996년 한 해동안 접수된 불건전 비음성 정보 신고건수는 모두 5,656건이며, 조치건수는 ID정지가 504건, ID경고 1,116건으로 집계하고있다(서울신문, 1997: 7. 4.).

정보시대 다매체, 다채널이 안겨다 주는 감각문화는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상들을 길러 내고 있다. 이런 신종 인간 조류를 가리켜 문화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비디오쿠스’라고 부른다. 비디오쿠스란 자유를 외치며 몸종 됄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스파타쿠스들이 아니라, 전파가 안겨다 주는 쾌락에 그 스스로 몸종

이 되어 버리는 노예이다. 이러한 비디오쿠스는 쾌락의 정치경제적 산물이다. 비디오쿠스를 쾌락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자신이 소속한 가정 직장 집단 사회 국가 등에서 유대감을 상실한 채 스스로를 소속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 채 쾌락에 탐닉한다는 점에서이다. 그리고 비디오쿠스를 쾌락의 경제적 산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음란물은 돌팔이의사 매춘과 같이 준사회기관적 성격을 갖는 비정상적 노동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비디오쿠스 중의 한 유형이 나홀로족이다. 제일 기획이 최근 서울 지역 25~35세 남녀 1백 명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이런 나홀로족 응답자의 80%는 가장 큰 관심사로 자기 자신을 들었고, 38%는 세상이 또는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들 나홀로족의 특징은 타인 심지어 가족의 간섭이 받기 싫어 '밖에서 집으로,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활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족속이다. 정보 매체인 컴퓨터나 비디오, 멀티미디어는 이들에게 삶 바로 그 자체이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대개가 단조롭다. 응답자들의 32%가 집에서도 자신의 방을 벗어나지 않는다. 20%는 자신의 방 이외의 방은 낯설다고 답했다. 나홀로족들은 집에 있는 것이 편해 외출을 하지 않거나(31%), 친구를 집으로 불러 만나고(30%), 집에 있을 때는 간섭받지 않으려고 자동응답기 전화를 작동시켜 놓는다(24%). 이들의 안식처인 방은 작은 문화 공간이다. 이들은 자신의 방에 오디오(80%), 컴퓨터(60%), TV(57%), VTR(37%) 등을 갖추고 비디오 또는 음악 감상, 전자게임, PC통신, 모형 조립 등을 홀로 즐기는 게 취미 생활(56%)의 전부라고 대답했다. 나홀로족을 자처하는 회사원 김 아무개 씨는 "컴퓨터, 오디오 등으로 막대한 방을 보고 도깨비굴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 방에 꼭 처박혀 혼자만의 생활을 즐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속적 의미의 성공이나 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49%) 자신만의 안락한 생활 그 자체에 가치를 둔다. 응답자의 87%는 형식적인 대인 관계와 무력감에 시달리기 싫어 가끔 사회와 관계를 끊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도피하려고 한다(한준상, 1997, 160).

최근 웹(web)중독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컴퓨터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웹 중독자들은 사회를 기피하면서 온라인과 허망한 관계에 만족을 하려드는 대인관계 기피자로 정신

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나홀로족과 웹중독 환자들은 미디어가 개인을 파편화 시키고 있는 구체적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대면 접촉은 말할 것도 없이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상호 작용도 최소화하는 이러한 메니아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첨단인 컴퓨터라 하더라도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결코 기계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2. 개인의 파편화에 대한 종교적 극복가능성

현대인들은 파스테르나크가 <의사지바고>에서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한 것처럼 보람있는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빵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한한 소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텅 빈 머리만을 가지고 인생을 총총 걸음으로 내달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컴퓨터는 드디어 인간을 정복하였다. 이제 우리의 세계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컴퓨터가 계산해 주고 명령하는 것을 아무런 군소리 없이 따르고 있는, 즉 Reissman이 말했던 “외부지향적 대중사회”가 되어 버림으로써 인간 부재의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인간은 이로써 높은 차원을 지향하며 사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일차원의 관능적·감각적 욕망 충족에 만족하는 즉 Marcuse가 예로 든 “동물적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은 많은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낼 수 있으며, 사회에 매달리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 자신을 숨기고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일찍이 Heidegger가 말한 ‘Das Mann’ 즉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린 군상의 가장 일그러진 모습이다.

쾌락주의적 행복은 종교적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종교인의 생활에는 ‘금욕주의’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개인의 구원은 바로 인간의 쾌락에서부터의 구원으로 생각하기까지에 이르렀는지 모른다. 어쨌든 종교적인 인간은 비쾌락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 역시 양심적이며, 정당당당하고 올바른, 그야말로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Kant 이후의 기독교

교 청도교도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으며, 유교의 '극기'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또한 불교의 심(心)과 공(空)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석과 보석이 서로 부딪쳐 부서지고 가공됨으로써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부딪치고 그 삶을 공유할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높일 수 있다. Durkheim은 종교는 사회공동체의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종교는 개인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승화시켜 개인의 문제를 초월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물질문화로 개인을 파편화시키고 있는 고립과 무기력을 치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진실된 사랑은 삶의 현실에서 고난·시련·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웃과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몇배로 늘릴 수 있으며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진실된 사랑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시켜주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인간특유의 삶의 존재방식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성'이 전제된 사랑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시켜주며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사랑은 모든 종교가 실천윤리로서 강조하는 최고덕목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는 근본적 대안은 가히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IV. 생명존중과 영적 교육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의 개발로 고도의 물질문명을 이룩하여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유족(裕足)하게 사는 길을 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물질문명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과 공해, 즉 환경오염을 몰고와 도처에 인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오염에서 오는 각종 공해는 수질오염을 비롯해서 대기오염, 농산물 등의 식품오염, 약품오염 등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보금자리마저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수많은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아황산 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독한 각종 가스, 공장폐수에서 흘러 나오는 유기수은 등의 유독가스와 중

금속, 그리고 각종 살균 살충제, 제초제 등의 독성 농약, 이 밖에 각종 세정제, 방사성 폐기물 등등, 이 모두가 하늘과 땅과 물을 오염시켜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독물질의 체내 침입은 물론 대기중에 떠오르는 오염된 먼지 등이 수증기와 함께 응결되어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Goldbag은 금세기 말경에는 지구의 기능이 저하되어 새로운 인조빙하시대가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으며, 또한 바다에 유입된 폐유가 유막층을 형성하게 되면 전 지구의 60%이상의 산소를 공급하는 플라크톤이 살아 남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산소부족현상이 나타날 거이라고도 예측했다. 심각한 생태학적인 사멸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지구수탈의 학교교육

이 시대는 역설의 시대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힘의 행사는 인류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위험을 만들어내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역설들이 시사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 했던 근대화의 기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회구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적 응급조치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오늘날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On는 인간정신의 위기는 인간 가치실현을 본질로 하는 교육의 총체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지구수탈 경제 속에서 젊은이에게 강요된 교육의 주요 신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지식은 어디서나 한 가지임으로 추상적인 지식이 실제적이거나 지역적 또는 토착적 지식에 비하여 더 중요하다. 고도기술이 보다 단순한 기술보다 더 낫다. 신체적 기술은 지적 기술과 별개의 것이며, 지적기술보다 덜 중요하다.
- ◆ 성공이란 현금경제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내가' 앞선다. 자기 만족은 자기 부정보다 더 바람직하다.
- ◆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는 경쟁이다. 따라서 젊은이는 협력보다 경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적인 것보다 도시적인 것이 더 낫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이 쓸모 없다면 그것은 도시를 위한 값싼 자원과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 교육의 목표는 젊은이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요구하는 성장경제에 봉사하도록 한다(Ort,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닥친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비상사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교육기관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인간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파멸적 재앙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지구수탈적 교육과정에 얽매어 있다.

생태적 쇠퇴과정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복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여야 하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분석능력과 실제적 기술은 무엇인가? 이것은 쉽게 답변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다.

2. 생명존중 윤리와 영(靈)적 교육

오늘날 지구적 상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과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인간사회 내부의 문제들과 더불어 인간사회와 자연 사이에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인류전체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물질적 가치의 추구보다 인간관계, 창조성, 영성, 자연에 대한 존중과 생물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되는 사회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체제 수준에 무제한으로 자연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던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에서 자연의 용량 안에서 인간활동을 규제하는 생태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시민환경 윤리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의 절대적 특수성을 전제로하는 서양의 3대종교-유태교, 기독교, 회교는 자연에 대한 정복과 소유를 정당시해왔다. 이것은 신으로부터 해방을 전제로 한 계몽주의 이후 사상이 인간중심의 사고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도구적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는 산업사회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자연관이 오늘날 생태계파괴를 가져온 배경이다. 그러나 인간과 더불어 영원을 꿈꾸며 오늘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모든 생물을 동등한 입장에서 윤리적 준거대상으로 삼는 노장사상, 불교, 특히 불교의 형이상학에 입각한 영적 윤리 패러다임이 수용되어야 한다. 영적 윤리 패러다임은 바로 녹색윤리 패러다임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녹색윤리 패러다임은 60년대 이후 날로 악화되어 가는 지구상의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존속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윤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녹색윤리란 생명중심의 윤리관이다. 녹색윤리는, 즉 인간중심의 윤리관에서 생명중심주의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하고 나아가 근본적 개방을 추구한다. 녹색윤리는 부족중심도 아니며 민족중심주의를 배격할 뿐만 아니라, 계급중심적 사고를 초월한다. 녹색윤리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윤리적 공동체로 삼아야 한다는 지구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를 표방한다(朴異汶, 1994).

녹색윤리 패러다임에서는 오늘날 지구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병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을 주목한다. 즉, 지구를 파괴하게 된 진범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지구병은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둔 잘못된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녹색윤리에서는 인간의 자연 정복사·지구수탈사가 지구병의 주범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 주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지구적 비상사태는 과학·기술의 위기가 아니라 사고의 위기, 가치의 위기, 지각의 위기, 사상의 위기, 판단의 위기라는 것이다. 지구환경 위기는 한마디로 인간 정신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이다.

V. 건강한 종교생활과 종교교육

한국은 다종교국이다. 한국이 다종교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공휴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종교적 공휴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음력 4월 8일의 석가탄신일이다. 그리고 단국의 개국을 기념하는 10월 3일 개천절이 있다. 우리의 조상 제사와 관련이 있는 공휴일(명절)로 추석과 구정이 있다. 이날은 우리는 조상에 대한 차례와 제사 그리고 성묘라는 나름대로의 종교적 의식을 갖는다. 이처럼 우리는 다섯번의 종교적 성격이 있는 공휴일을 갖는다. 이처럼 종교적 공휴일이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어쨌든 한국사회에는 유교·불교·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하나도 오늘의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 유교는 극동의 한자문화권을 대표하는 종교이며, 불교는 인도의 명상적 사유문화체계를 대표하고, 기독교는 유태교와 이슬람을 포함한 이른바 유일신관이 종교전통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유교·불교·기독교의 공존상태는 곧 인류문화사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종교전통들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선사종교의 대표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는 무속 내지 샤머니즘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9세기 가치관의 격변기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민족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종교문화의 정황 속에 공간적으로는 세계문화사의 주축을 이루는 동서양의 종교전통과 시간적으로 선사시대에서부터 19세기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윤이훈, 1997: 17).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서로 상반된 문제를 갖게 된다. 첫째는 자신의 종교생활에 대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타종교인들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록 서로를 믿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실천하는냐 하는 갈등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9월 시카고의 세계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윤리선언'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문명간 그리고 종교간 갈등이 존재하는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인식 아래

세계 모든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종교간의 평화가 없다면 문명들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명제를 전제로한 「세계윤리선언」은 우선 종교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Hans Kung, 1997: 63-64).

우리의 다양한 종교적 윤리적 전통은 흔히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무엇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해로움이 되며, 무엇이 정의롭고 그렇지 않으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개별 종교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숨기거나 무시하려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 이 선언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종교들이 이미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여러 종교에서 발견되는 원칙도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나이, 성, 피부색, 육체적·정신적 능력, 언어, 종교, 정치적 관점,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선언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수많은 종교들과 윤리적 전통 내에서 입증된 황금률인 하나의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떤식으로든 네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 주어라”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 원칙은 “삶의 모든 측면, 가족과 공동체, 인종, 국가와 종교를 위해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세계윤리선언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네가지 포괄적이며 오래된 지침, 영원한 진리를 도출하고 있다. 즉, ①삶을 존중하고 비폭력에 노력하는 문화에 대한 의무 ②결속의 문화와 공정한 형태의 세계무역에 대한 의무 ③삶에 있어 아량과 정직의 문화에 대한 의무 ④기회균등과 남녀평등의 문화에 대한 의무 등이다.

「세계윤리선언」은 “개인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세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집단적 수준 모두에 걸친 집단의식의 변화이다. 반성·명상·기도·적극적 사고를 통한 정신적 힘의 각성 그리고 마음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가 함께 하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위협과 희생에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통의 세계윤리에 맞춰 보다

나은 상호이해를 추구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자연과 조화되는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건강한 종교생활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육은 ①특정종교를 필요하는 종교교육 보다는 종교 그 자체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종교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종교교육, ②자신이 믿는 종교가 아닌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일 수 있는 종교교육, ③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양식에 따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때때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내기도 하는 각종교별 파벌형성과 갈등, 대립과 반복 혹은 금전문제등 종교의 세속화는 모든 종교인들의 자기성찰과 반성으로 정화해야 한다. 종교는 그 자체가 사회를 비취볼 수 있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교육적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VI. 결론

정보사회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크고, 정보기술은 수명이 매우 짧은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보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로 남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연령층을 소외시킨다. 또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주민카드 시행예고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음란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이 황폐화되고, 통신이나 컴퓨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병적인 경우도 있다. 과학의 발전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주지만 고충격의 위험도 함께 가져다 주고 있다. 컴퓨터는 알라딘램프(alladin lamp)가 아니다.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며 이것은 선용될 수도 있지만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종 컴퓨터 범죄의 폐해는 심각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매니아들은 가상공간에서 가상현실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완전히 현실을 떠나 있으며, 혼자만의 공간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인간관계의 본질마저 파괴된다. 현실문화가 아니라 가상문화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상품화 하거나 기계의 부속품화 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믿는다. 진실로 과학기술이 살맛나는 사회, 삶의 질이 보장되며 인간을 존중해 주는 인간의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으로 믿는다. 가치의 위기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기도 하다. 언제나 사람들은 경제, 건강, 지질, 기후, 전쟁, 자연재해 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난관에 부딪쳐 왔지만 자신들의 가치체계 덕분에 효과적으로 그것에 적응할 수 있었다. 아마 과거 어느 시기에도 오늘날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 왜(why)라는 의문을 갖고 도전을 맞이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물질지상주의와 쾌락문화에 그 바탕을 둔 가치위기와 인간성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접근의 종교교육이 갖는 시사점을 결론 삼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자연-사회-우주로 연결된 인간실존에 대한 종교적 각성교육은 물질문화에 집착하는 인간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종교'라는 것을 '종교적'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때 종교의 한층 깊은 뜻, 한층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종교적이라 할 때는 조직화된 종교로서 표현된 종교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체에 관련된다. 다시 말해 종교적이라는 말은 우주의 궁극에 대한 문제제기며, 인간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종교교육이란 종교적 측면에서 인간생활과 문화의 전역에 걸친 이해와 수용을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종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종교윤리 교육은 오늘날 사회윤리의 부재와 타락을 치유하기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종교에따라 표현이 다를수 도 있고 더 첨가될 수도 있겠지만 종교 윤리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가치에는 생명·의식·그리고 활동, 건강의 힘,

어떤 종류의 또는 전체적인 쾌락과 충일감, 행복·축복·만족 등등, 진리, 여러가지 종류의 지식과 참된 의견·이해·지혜, 미·조화·사색되는 대상에 있어서의 균형, 심미적 경험,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 또는 미덕, 상호적 애정·사랑·우정·협동, 선과 악의 정당한 분배,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조화와 균형, 권력과 성취의 경험, 자기표현, 자유, 평화·안전, 모험과 새로운 경험, 호평·명예·존경 등이 있다. 이들 가치들은 대부분 '생리적'이라든지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혹은 '영적'이라는 범주들에 들 수 있는 것들이다.

세째, 진실된 종교적 사랑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고립시키고 개인의 파편화를 조장하는 쾌락주의 문화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기자신은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해 줄 것이다. 종교적 금욕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이의 실천능력 배양은 동물적 욕구충족을 자극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여 건전한 삶의 존재방식을 갖게 해줄 것이다.

네째,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윤리적 공동체로 생각하고 녹색윤리 패러다임에 입각한 영적교육의 확산은 오늘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 상호공존 및 합자연의 원리를 존중하는 생명존중의 인간관·역사관·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존중의 영적교육은 지극히 종교적이다. 이러한 영적교육은 과거·현재·미래를 상호연결할 수 있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환경윤리의식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종교교육이 아니라 다종교적 접근의 폭넓은 종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서로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종교와 종파간 갈등과 대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건강한 종교생활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종교적 측면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은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스스로가 자신을 무인고도인 가상공간에 간금시킴으로써 개인의 파편화가 이루어지는 정보시대에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상에 제시한 종교교육의 과제는 모든 종교를 망라하는 종교적 차원의 과제들이다. 여기에서 종교적이라함은 특정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차원에서 종교교육이 그 본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세속화

가 경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주변을 살펴보면 세상이 종교를 부패하게 만드느니,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느니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부 종교와 종파의 세속화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상업주의에 패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교가 무엇을 구원한단 말인가? 무릇 종교는 세상의 등불이라 하지 않는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건전한 종교가 있는 한 우리사회가 ‘아수라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의인이 한사람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로 황폐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종교인은 자기반성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변혁의 주체세력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기철(1994). 후과학단계의 세계관, 서울: 문예출판사.
- 강현두, 원용진 전(1994). 뉴미디어와 초정보사회, 서울: 오름.
- 국제크리스찬 교수협의회 역음(1987).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주류.
- 김성재(1992). “종교와교육의 관계” **새교육** 1992년 12월호, 서울: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 24-31.
- 박선영(1996). “한국종교들의 인간관과 인격교육의 가치요소: 전통종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59-184.
- 박이문(1994). “녹색윤리”. **녹색평론**, 제 15호, 1994년 3월-4월호, pp.41 -55.
- 박해원, 박금주(1996). 청소년을 위한 전자게임 프로그램의 규제 및 평가체계 개발, 서울: 집문당
- 서광선(1994). 종교와 인간,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이윤선(1992). “종교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새교육** 1992년 12월호, 서울: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
- 이희수(1997). “청소년 정보윤리(문화) 교육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 **교육사**

회학연구 vol.7, No.3. 139-157.

이회재 옮김(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윤이흠(1993). *현대인의 삶과 종교*. 서울: 고려한림원

윤세원(1987). “과학시대에 있어서 인간과 종교, 현대사회와 종교. 국제크리스찬 교수협의회취임. 서울: 주류, PP. 91-103.

장대환 감역(1996). *21세기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정영애(1997). “정보화사회의 교육 패라다임변화와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Vol.7, No.3. 교육사회학연구회, 177-198.

조영식(1993). *인류사회는 왜, 이렇게 재건되어야 하는가?*. 서울: 고려원.

조용길(1992). *종단학교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불교종단 학교실태*, 전망-새교육 1992년 12월호. 서울: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최정호외(1995).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최재선외(1991).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바울신서사

크리스찬 아카데미편(1997).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서울: 대화출판사.

한준상(1997).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의 수용과 과제,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크리스찬 아카데미편. 서울: 대화출판사, pp. 144-174.

Drucker.P.F(1993). *Post-Cspitalist Society*. NewYork:Harper Bussiness.

Forester.T and Morrison.p.(1995). *Computer Ethics-Cautionary Tales and Ethicaial Dilemas in Computing*, Cambridge: The MIT Press.

Hans Kung(1997). “문명충돌에 대한 대안”. 21세기 예측. 장대환 감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Losoncy, Lawrence J.(1977). *Religious Education and Life Cycle*. Bethlehem: Bookseller of Bethlehem, Inc.

Moran, Gabriel(1983).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Minnesota: Winston Press, Inc.

Negroponete, N.(1995). *Being digital*. New York: Vintage Books.

Orr, David(1995). “교육의 녹색화”. *녹색평론*. 제 23호. 1995년 7월 - 8월. 30-39.

Postman, Neil(1997). “정보 홍수 충격”. 21세기 예측. 장대환 감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Schwab, Klaus(ed.)(1995). *Overcoming Indifference:Ten key Challenges in Today's Changiry Worle*. New York: New York Chiersity.